

2021.04

Law school

로스쿨 팩트 체크

Fact Check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린 채 한손에는 저울을 들어
웁고 그림을 가려내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어 잘못을 심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과도기에 있다.

디케가 웁고 그림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눈을 가렸듯이
우리도 서로의 이익과 명분만이 아닌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할 때이다.

CONTENTS 목차

01 로스쿨 제도의 도입	4p
02 출신 대학의 다양성	9p
03 전공의 다양성	14p
04 다양한 연령대의 변호사 집단 형성	15p
05 로스쿨의 장학금 제도	16p
06 로스쿨의 특별전형제도	20p
07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	22p
08 여성 법조인 수의 증가	23p
09 로스쿨의 입학전형제도	24p
10 체계적인 교육과정	26p
11 로스쿨의 교육지원 현황	28p
12 로스쿨의 학사 관리	29p
13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는 졸업생	30p
14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	34p

01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의 전환 로스쿨 제도의 도입

한국에서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는 1963년 처음 시행된 사법시험이었다. 사법시험은 첫해부터 반세기 넘도록 약 2만 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적지 않은 폐단을 드러냈다. 참여정부 시기인 2003년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한다.)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09년 로스쿨 제도가 출범함에 따라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2017년 사법시험은 폐지되었다.

1-1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무엇이 다른가?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법조인이 삶이 결정 • '수험용 법지식'이라는 획일적 잣대가 선발의 최우선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조인의 자질이 있는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여 오랜 기간 교육을 통해 양성 • 교육과 실습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다층적 체계가 마련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면서 로스쿨을 도입한 것은 기존 법조직역의 기득권 영속을 무너뜨리고 독과점 체계를 허물어 그들의 이너서클 문화를 깨뜨림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법률시장 개방 등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함이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서초동 법원 앞에서만 변호사 사무실들이 옹기종기 모인 모습이 아니라 시골 마을에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로스쿨이었다. 기존 송무시장에 대한 안주와 집착을 버리고, 변호사 자격 소지자들이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 자리 잡음으로써 법치주의를 고양하고 인권존중의 풍토를 조성하고 사전에 법률분쟁을 예방하여 거래비용을 줄이며, UN, 국제적 NGO 등에도 우리 변호사들이 진출하여 법률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이 로스쿨 시대의 변호사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인 것이다.

출처: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에 관한 연구(2020년), 오수근

1-2

법조인 양성 시스템 비교

로스쿨 제도는 기존 사법시험 중심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 하에서 제기됐던 법학교육의 폐쇄성, 전문 인력 양성의 불충분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다. 한 번의 시험으로 법률가를 선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론+실무)을 실시해 법률가를 양성한다.



1-3 사법시험, 무엇이 문제였나?

고시낭인 양산과 법학교육의 황폐화

사법시험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법조인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대한 '올인'은 대학에서의 전인적 교육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동시에 법학교육을 황폐화시켰다. 법학전공자도 공적 대학교육 시스템을 버리고 수험법학에 매몰되었으며 비법학전공자도 고시학원가로 내몰렸다. 또한 일확천금과 같은 신분상승에의 환상은 극소수만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매몰비용을 불러왔다.

법조직역의 획일화, 폐쇄화

판검사의 실무교육에 중점을 둔 연수원 교육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부분 송무시장으로 진출하여 법조직역의 획일화를 가져왔다. 특히 사법연수원은 국가 주도의 집체교육을 통해 기수 문화나 특권의식을 형성하고, 폐쇄적인 법조인의 동류의식과 집단문화를 통해 법조관료주의를 낳았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

사법시험은 소수의 서울 소재 대학에서 대부분의 합격생을 배출하여 지방대학의 학생들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 분권 강화 정책에 역행한다.

국제경쟁력 결여

경제규모의 성장으로 과거와 달리 새로운 거래형태와 거래주체, 거래분야가 발생·확대되면서 종래의 법률 전문지식에 더하여 과학기술, 환경, 경제, 경영지식과 결합되어야만 종국적 분쟁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법시험 시절 단순한 법지식의 적용과 틀에 박힌 문제해결법만으로는 새롭게 마주치는 법률분쟁에 전문적·창의적 대안을 모색하기 어려웠다.



정치권은 사시 존치 주장에 앞서 왜 여야가 사시폐지에 합의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시제도가 법조계의 배타적 독점을 낳고, '사시 낭인' 등 국가적 인력 낭비를 초래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시 합격증은 우리 사회의 평생 특권 신분증으로 통한다. 국회가 청문회 때마다 후보자들의 전관예우를 문제 삼으면서 정작 사시로 굳어진 법조계의 기득권은 못 본 척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사시 존치론의 논거는 한마디로 로스쿨의 비싼 학비가 신분상승을 막는다는 것이다. 변호사 공급이 늘어난 데 따른 법조계의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36%이고, 저소득층에는 국가 전액 장학금도 있다. 사시만이 '희망 사다리'이고 로스쿨은 '부의 대물림'이란 이분법은 왜곡에 가깝다.

사시 준비생들이 기약도 없이 각자 부담하는 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다. 사시를 로스쿨로 전환하는 것은 법조인의 '특권 신분증'을 누구나 요건을 갖추면 딸 수 있는 자격증으로 바꾸자는 취지다.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전공을 가진 법조인이 공급될수록 법률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이를 다시 되돌려 특권 신분증을 살리자는 주장은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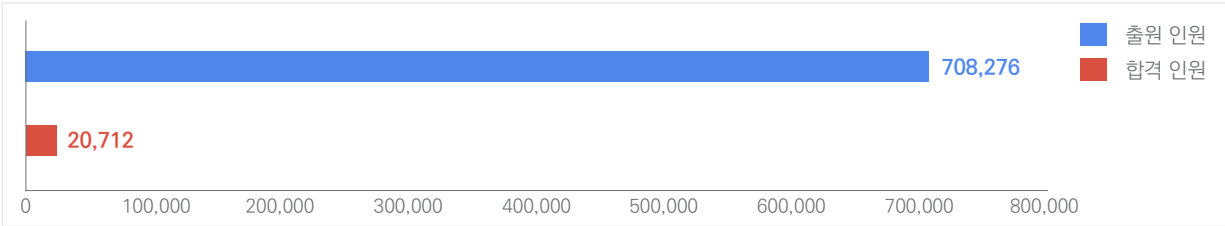
기사출처: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6.20.)

1-4

사법시험은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나 환경, 배경, 나이, 조건 등에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제도일까?

1) '누구나' 도전은 할 수 있지만, 합격률은 고작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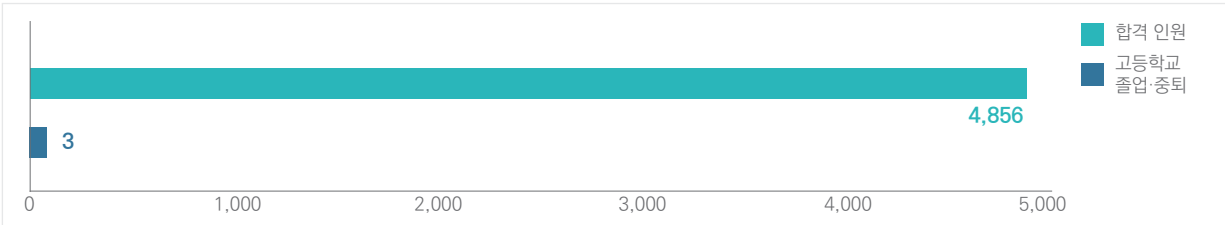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제1회부터 제58회까지의 출원자 708,276명에 가운데 겨우 20,712명만 합격(합격률 2.92%)하였으며, 낮은 합격률 때문에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기약 없는 수험생활을 해야 했다.



제1회 사법시험(1963년)~제58회 사법시험(2016년) 통계자료

2) 중졸, 고졸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0.06%

지난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중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겨우 3명이며, 2011년 이후로는 아예 배출되지 않았다. 또한 사법시험도 법학과목이수제도에 따라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하지만,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과 다름없다.



제50회 사법시험(2008년)~제59회 사법시험(2017년) 통계자료



〈사시, 개천서 용 나는 시스템 아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온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 사법시험의 최대 장점이지만 시험을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것과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로포 복권을 아무나 살 수 있지만 당첨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난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7900명 중에서 고졸 이하 출신은 5명이다. 대졸자라도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합격자는 전체 응시자의 3% 선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불합격에 따르는 '리스크'는 너무 크다. 한 마리의 용을 위해 숲한 이무기와 고시 낭인이 생겨나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비생산적인 인재 선발 시스템이다.

기사출처:경향신문 사설 (2015-07-19)

1-5 사법시험은 정말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한 시험일까?

장기화된 준비기간 등으로 인해 사법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수험생 일인당 평균 3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렇게 많은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고작 3%의 수험생만이 변호사가 될 뿐이었다. 이에 비해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 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었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크게 경감시켰다.

〈변호사 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기회 비용 비교: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2020년 가격 기준)〉

구 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기간(년)	총액(백만원)	기간(년)	총액(백만원)
1. 기본소양 교육비(학부교육)	4	23.3	4	23.3
2. 법전원 입학 준비(학원비, 도서비)		2.3		
3. 사법시험 준비(학원비, 도서비)			5	19.7
4. 법전원 학비	3	48.1		
5. 사법연수원 학비 기회비용			2	33.0
6. 생활비		49.3		87.6
7. 기회비용		69.6		162.3
합 계	7	192.5	11	325.9

사법시험 기간·금액 추정은 천도정/황인태의 논문(「법조인 선발제도별 법조계 진입유인 실증분석」, 2014)을 기초로 오류를 수정하여 제시한 것이고, 변호사시험 기간·금액 추정은 김두열의 연구보고서(「천도정, 황인태의 법조인 선발제도별 소요비용 추계비판」, 2016)를 2020년 기준으로 수정한 것이다.

1-6 사법시험은 정말 신분이동의 사다리이고, 로스쿨은 금수저만 가는 곳일까?

법조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비교·분석한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집안은 부모의 직업·학력 수준이나 가족 중 법률가의 여부 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사법시험이 더 이상 계층 이동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로스쿨 도입으로 부유한 계층 출신 학생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는 우려 또한 실체적 증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분	로스쿨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40-43기	34-43기	34기 이전	
가족 중 법률가 여부	부모 중 법률 전문가가 있다	3.6%	4.7%	3.0%	1.6%
	가족 중 법률 전문가가 있다	8.4%	10.7%	8.7%	7.1%
	가족 및 친척 중 법률 전문가가 있다	26.3%	29.7%	33.0%	17.8%
부모의 직업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	39.6%	40.0%	37.0%	26.9%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18.5%	16.7%	13.5%	7.7%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2호(2015년), 이재협

02 다양한 대학 출신의 법조인 탄생을 가능하게 한 로스쿨 제도 출신 대학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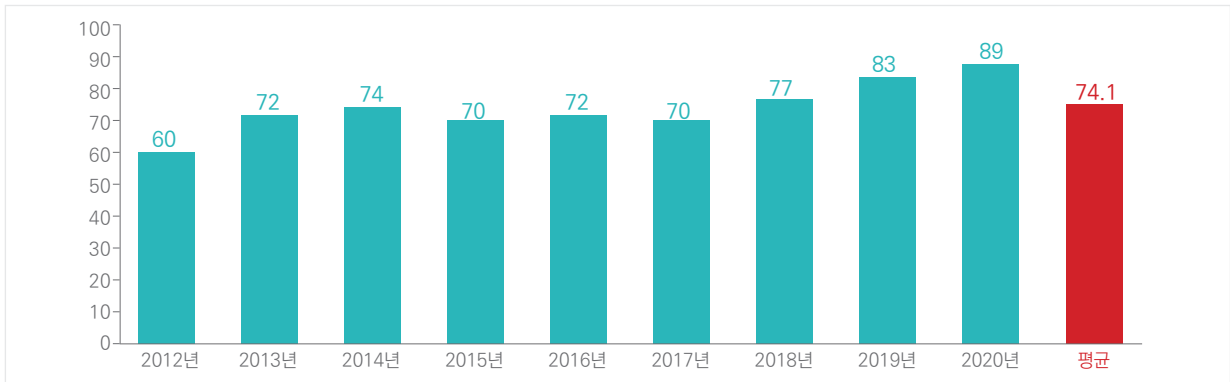
사법시험 합격자(2008년~2017년, 4,856명)의 출신대학과 변호사시험 합격자(2012년~2020년, 10,674명)의 출신대학을 비교 분석한 결과 로스쿨의 도입은 ‘법조인의 출신대학 다양화’를 이루었으며, 고질적인 주요대학 편중 현상도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 ▶ 출신 대학 수 비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출신대학, 사법시험 합격자보다 2.1배 많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생들의 출신대학 수는 연 평균 74.1개교였다. 반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출신대학 수는 연 평균 34.5개교에 그쳤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출신대학 수가 약 2.1배 많으며, 로스쿨의 도입으로 법조인의 다양화가 실현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수(2012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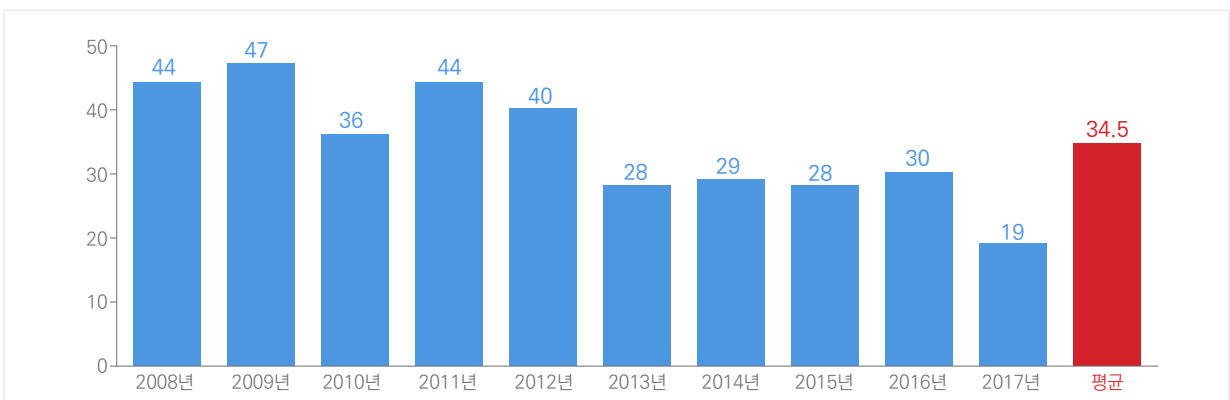
(단위: 대학 수)



※ 출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개별 로스쿨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22개교에 한함.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수(2008년~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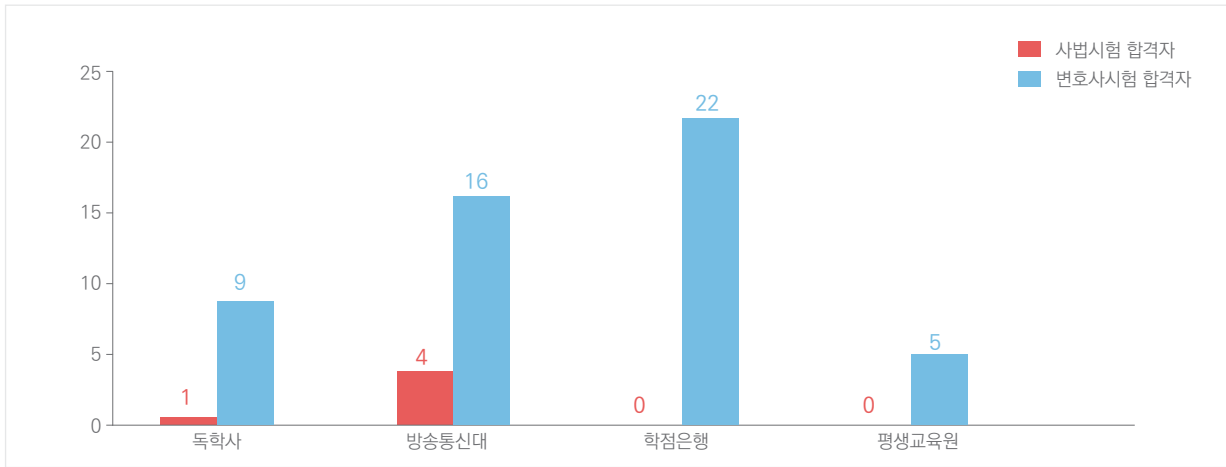
(단위: 대학 수)



출처: 사법연수원 (대학교 명이 '기타'로 표기되어 있으면 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4년제 대학교 이외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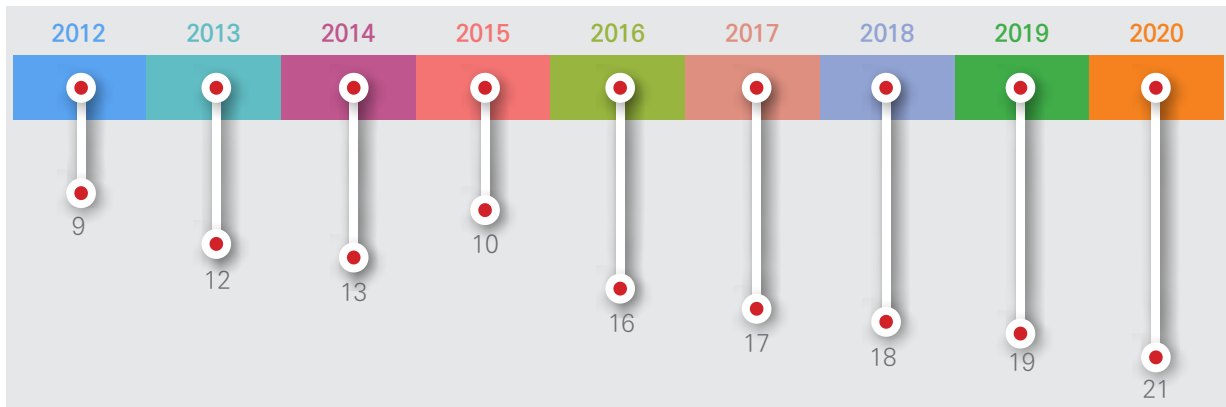
(단위: 명)



사법시험 합격자(2008년~2017년), 변호사시험 합격자(2012년~2020년)

〈해외 대학교 출신 인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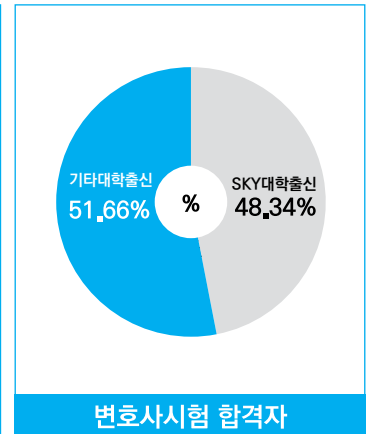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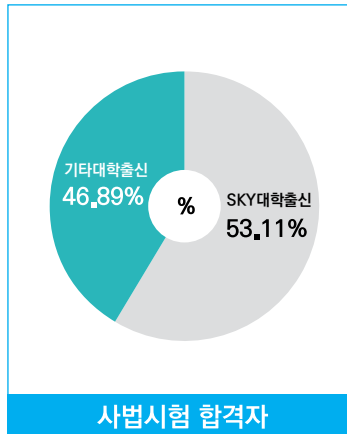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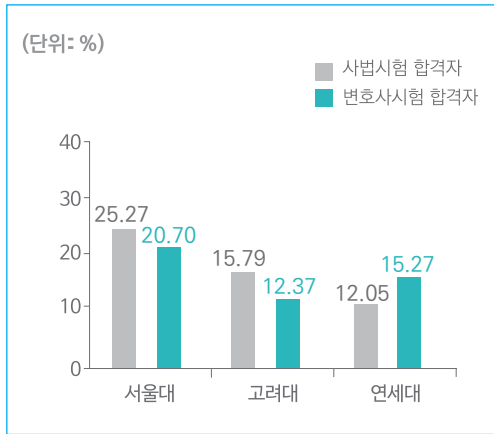
사법시험 합격자의 경우 해외대학 출신이 거의 없지만(통계상 표기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해외대학 출신은 2012년부터 135명으로 파악되었다.

2-2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점유율 비교

사법시험 합격자(2008년~2017년) 4,856명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53.11%에 달했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2012년~2020년) 11,623명 중 동대학 출신은 사법시험보다 4.77% 낮은 48.34%로 파악되었다.

구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합계
사법시험 합격자	1,227 (25.27%)	767 (15.79%)	585 (12.05%)	2,579 (53.11%)
변호사시험 합격자	2,406 (20.70%)	1,438 (12.37%)	1,775 (15.27%)	5,619 (48.34%)

※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개별 로스쿨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23개교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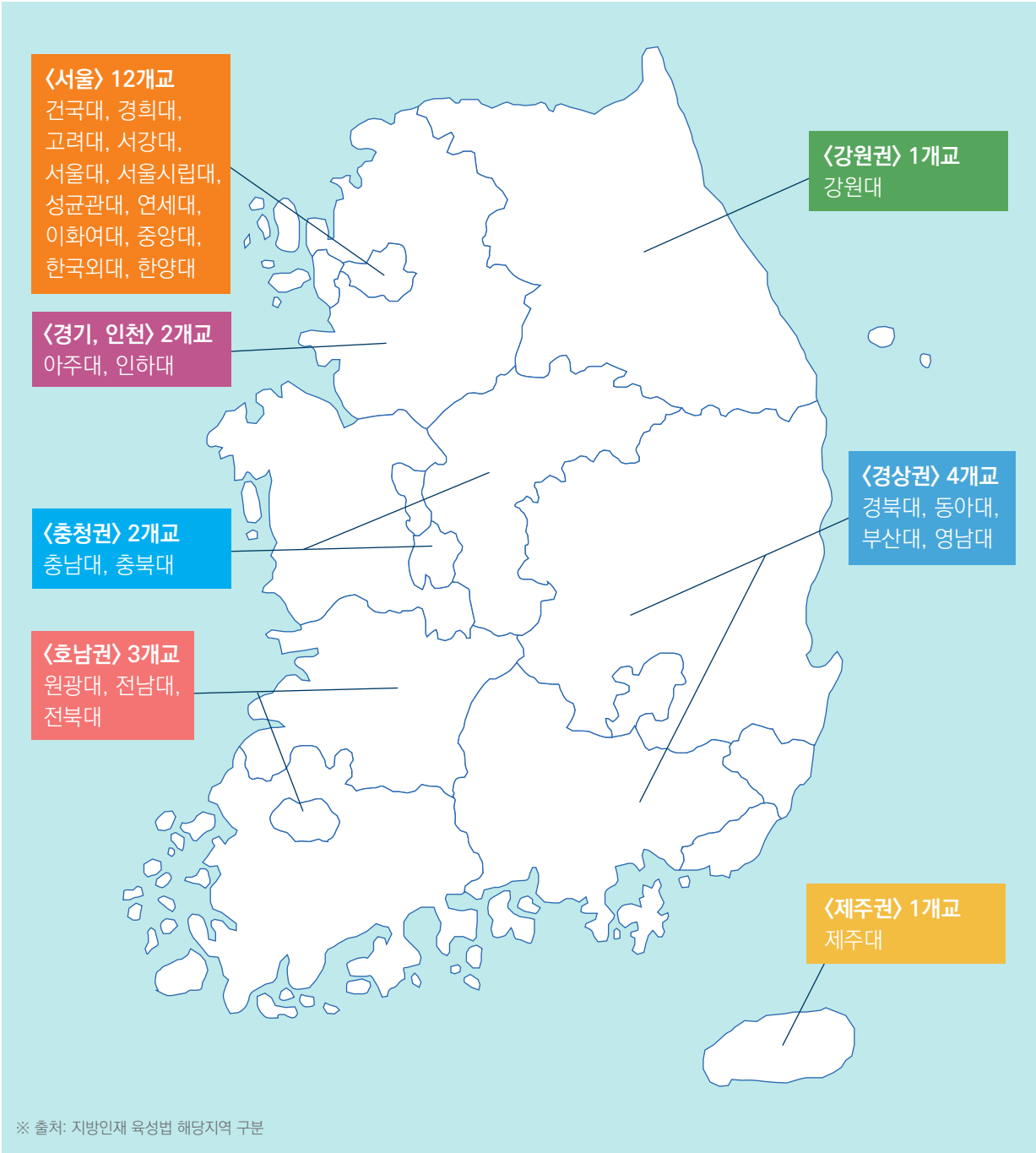
2-3 10대 대학 점유율 비교

사법시험 합격자(2008년~2017년) 4,856명 중 10대 대학 출신자는 4,002명으로 전체의 82.41%를 차지했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2012년~2020년) 11,623명 중 10대 대학 출신자는 8,748명 (75.27%)으로, 7.14% 차이를 나타냈다.

학교별	사법시험 합격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증감률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대학교	1,227	25.27	2,406	20.70	▼ 4.57
고려대학교	767	15.79	1,438	12.37	▼ 3.42
연세대학교	585	12.05	1,775	15.27	▲ 3.22
성균관대학교	362	7.45	780	6.71	▼ 0.74
한양대학교	334	6.88	633	5.45	▼ 1.43
이화여자대학교	305	6.28	810	6.97	▲ 0.69
부산대학교	123	2.53	248	2.13	▼ 0.4
중앙대학교	114	2.35	254	2.19	▼ 0.16
경희대학교	99	2.04	323	2.78	▲ 0.74
경찰대학	86	1.77	81	0.70	▼ 1.07
합 계	4,002	82.41	8,748	75.27	▼ 7.14

※ 10대 대학 기준은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비율 Top10 기준
 ※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개별 로스쿨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23개교에 한함.

2-4 로스쿨은 전국에 분산 설치되어, 법조인들의 출신 로스쿨 또한 다양하다는 사실!



과거 사법시험을 통과한 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후 법조인으로 배출되었던 것과 다르게, 로스쿨 체제에서는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25개 로스쿨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후 변호사가 되고 있다. 즉, 과거에 비해 ‘학부’도 다원화되었으며, 전국 각지에 설립된 로스쿨을 통해 수많은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다.

〈전국 로스쿨에서 배출된 변호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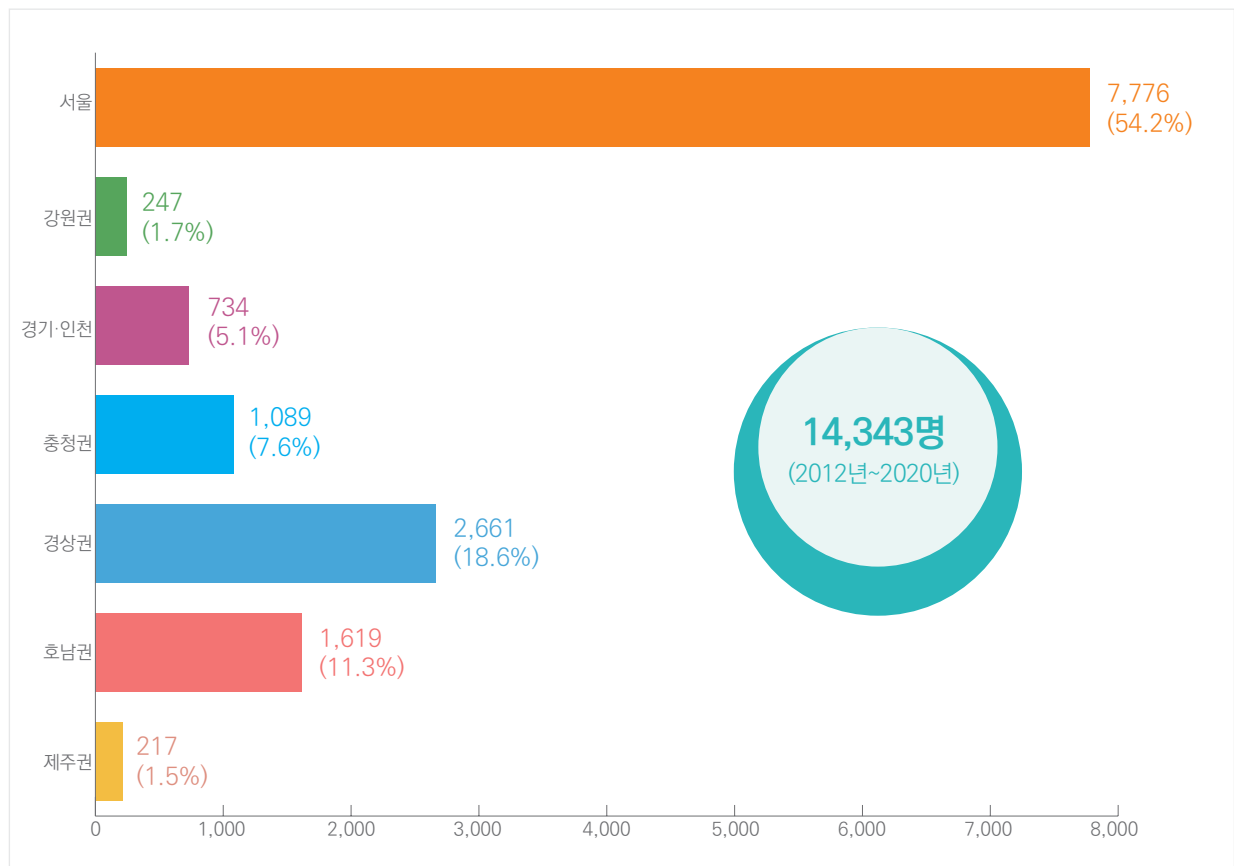
(단위: 명)

지역	학교명	배출인원	지역	학교명	배출인원
서울	건국대	278	경기·인천	아주대	364
	경희대	470		인하대	370
	고려대	965	충청권	충남대	652
	서강대	307		충북대	437
	서울대	1,212	경상권	경북대	813
	서울시립대	367		동아대	464
	성균관대	949		부산대	841
	연세대	973		영남대	543
	이화여대	778		호남권	원광대
	중앙대	368	전남대		808
	한국외대	366	전북대		491
	한양대	743	제주권	제주대	217
강원권	강원대	247			

※ 변호사시험 합격자 14,343명기준(2012년~2020년), 학교별 정원이 상이하므로 배출된 변호사 수에도 차이가 있음.

〈지역별 변호사 배출 분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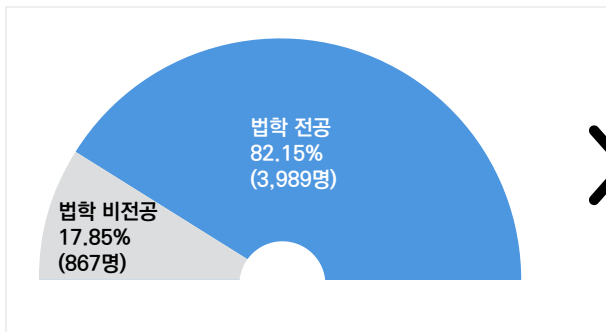
※ 변호사시험 합격자 14,343명 기준(2012년~2020년)

03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법조인 양성 제도, 로스쿨 전공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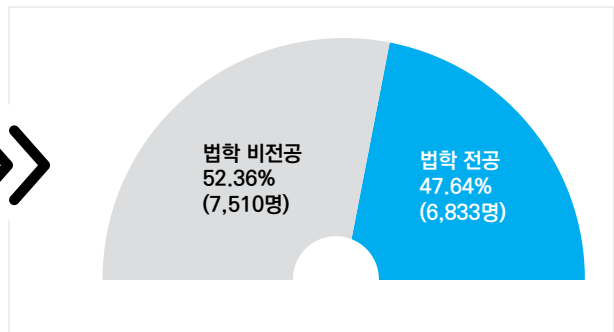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설립 취지에 따라 로스쿨에는 매년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입학하고 있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법조인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반면, 로스쿨 시대에는 법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자들이 법조인으로 양성되고 있어, 복잡 다기한 법률문제와 시민들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3-1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사법시험 합격자의 전공 비교

사법시험 합격자 4,856명(2008년~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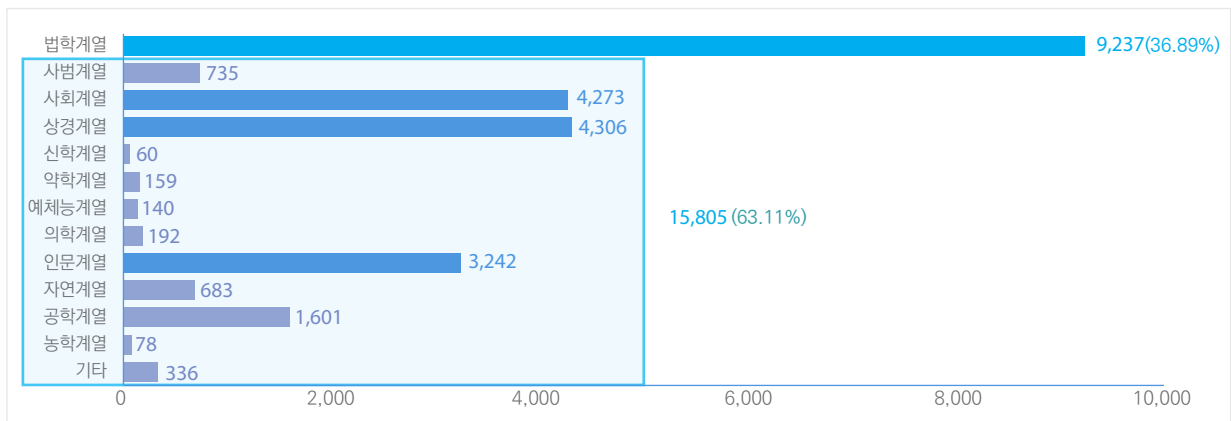


변호사시험 합격자 14,343명(2012년~2020년)



3-2 로스쿨 입학생의 학부 전공 현황

로스쿨 입학생 25,042명(2009년~2020년)



※ 2010학년도에 경우 결원충원 인원이 포함되지 않음.

04 특정 연령에 집중되지 않는 다양한 연령대의 변호사 집단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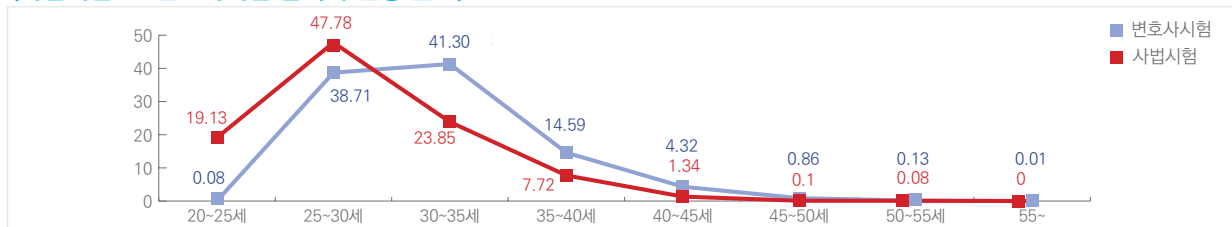
과거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들의 연령 분포도는 특정 연령에 집중되어 있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령 분포도는 완만한 곡선을 그린다. 이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 변호사 집단의 연령이 다양화되었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대학졸업 후 직장 생활 등 다양한 사회경험을 해본 이들이 변호사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4-1 변호사 집단의 연령 다양화 실현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25세~30세가 47.78%로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30세~35세, 20세~25세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사법시험 합격자에 비해 다양한 연령대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35세 이상은 19.91%로 사법시험 합격자보다 2배 이상 높은 연령대에서 변호사를 배출하였다.

〈사법시험 vs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령 분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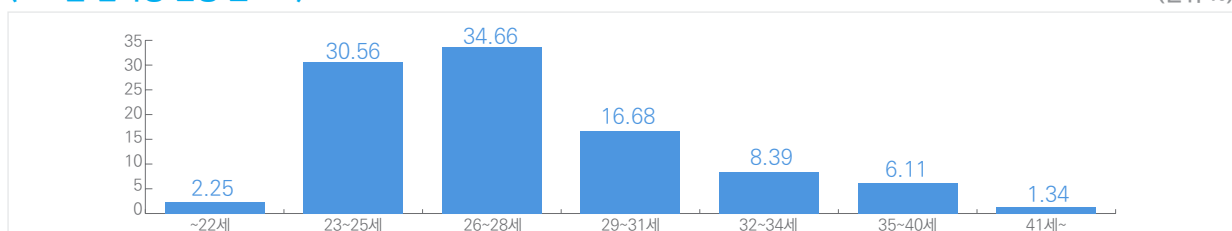
※ 사법시험 합격자(4,856명, 2008년~2017년), 변호사시험 합격자(14,343명, 2012년~2020년)

4-2 로스쿨 입학생 연령 분포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입학생 연령 분포도를 살펴보면, 26세~28세가 8,680명으로 전체의 34.66%를 차지하였고, 23세~25세(30.56%), 29세~31세(16.68%) 순이다. 32세 이상은 3,967명으로 전체의 15.84%를 차지했다.

〈로스쿨 입학생 연령 분포도〉

(단위:%)



※ 로스쿨 입학생(25,042명, 2009년~2020년)

05 실력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로스쿨의 장학금 제도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 목적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로스쿨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로스쿨의 장학금 제도는 교육부가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 장학금과 개별 로스쿨에서 지원하는 기타 자체 장학금으로 구분된다.

5-1 소득구간별 재학생 분포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욱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가구 연소득 구간별 장학금 지급 현황 (2020학년도)

(단위: 명, %)

소득구간	지급인원(명)	비율(%)	누적비율(%)
기초생활수급자	226	1.9	1.9
소득 1구간	1,004	8.4	10.3
소득 2구간	402	3.4	13.7
소득 3구간	401	3.3	17.0
소득 4구간	408	3.4	20.4
소득 5구간	154	1.3	21.7
소득 6구간	469	3.9	25.6
소득 7구간	200	1.7	27.3
소득 8구간	356	3.0	30.3
소득 9구간	332	2.8	33.1
소득 10구간	735	6.1	39.2
기타	1,337	11.1	50.3
합계	6,024	50.3	-

※ 2020학년도(1, 2학기) 재학생 12,000명 기준

※ '기타'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장학금(성적장학, 근로장학 등)

5-2 장학금 지급 비율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00% 이상	1,152	19.20	1,149	19.15	1,178	19.63	1,186	19.77	1,142	19.03	1,163	19.38
90%~100%	299	4.98	371	6.18	277	4.62	316	5.27	286	4.77	334	5.57
80%~90%	78	1.30	90	1.50	74	1.23	77	1.28	81	1.35	56	0.93
70%~80%	132	2.20	119	1.98	146	2.43	123	2.05	106	1.77	133	2.22
60%~70%	80	1.33	103	1.72	82	1.37	66	1.10	78	1.30	92	1.53
50%~60%	165	2.75	160	2.67	139	2.32	151	2.52	179	2.98	163	2.72
40%~50%	176	2.93	143	2.38	162	2.70	171	2.85	146	2.43	150	2.50
30%~20%	144	2.40	141	2.35	160	2.67	144	2.40	173	2.88	150	2.50
20%~30%	219	3.65	252	4.20	216	3.60	249	4.15	234	3.90	242	4.03
10%~20%	270	4.50	182	3.03	216	3.60	170	2.83	191	3.18	121	2.02
~10% 미만	367	6.12	388	6.47	312	5.20	312	5.20	494	8.23	353	5.88
합계	3,082	51.36	3,098	51.63	2,962	49.37	2,965	49.42	3,110	51.82	2,957	4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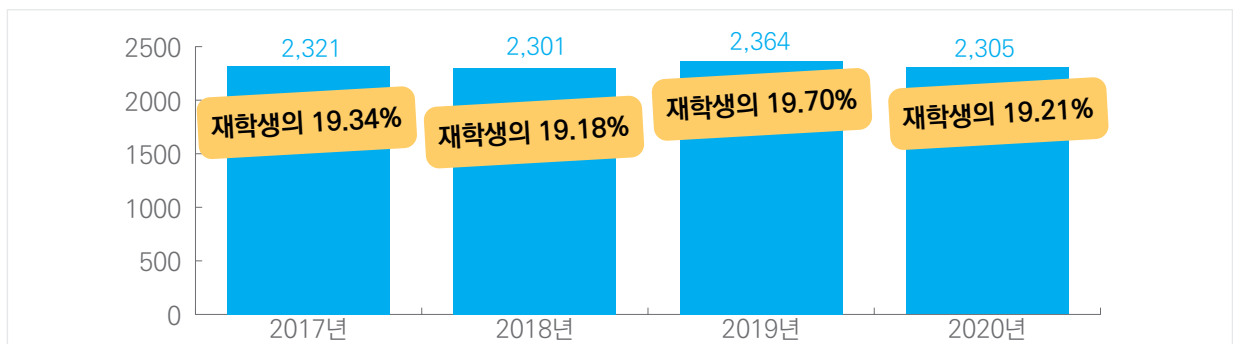
※ 학기별 재학생 6,000명 기준

5-3 연도별 전액장학금(100% 이상) 수혜 인원 및 비율

로스쿨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2,321명(2017년), 2,301명(2018년), 2,364명(2019년), 2,305명(2020년)으로 매년 평균 2,323명(19.36%)이 등록금 100% 이상의 장학금을 받았다.

로스쿨, 취약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매년 전체 재학생의 20% 가량이 등록금 전액 지원 받으며 공부

(단위: 명)



※ 연도별(1, 2학기) 재학생 12,000명 기준

5-4 등록금 50% 이상 장학금 수혜 인원 및 비율

〈등록금 50% 이상 장학금 수혜 인원 및 비율〉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학기	1,995명 (33.25%)	1,906명 (31.77%)	1,896명 (31.60%)	1,872명 (31.20%)
2학기	1,961명 (32.68%)	1,992명 (33.20%)	1,919명 (31.98%)	1,941명 (32.35%)
합계	3,956명 (32.97%)	3,898명 (32.48%)	3,815명 (31.79%)	3,813명 (31.78%)

※ 학기별 재학생 6,000명 기준

등록금 대비 50% 이상 장학금 수혜 학생 수는 학기별 약 2,000명으로 전체의 32~33%에 달한다. 즉, 로스쿨 재학생의 33% 가량은 등록금의 절반만 내고 학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 장학금 지원 순위(교육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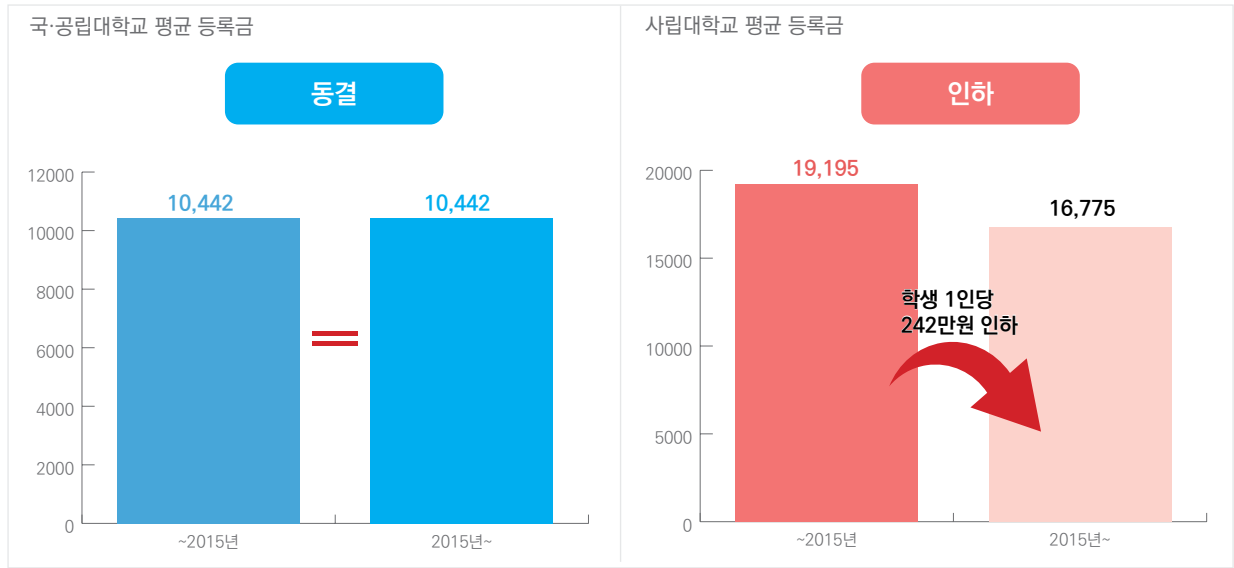
순위	지원내용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 등록금 100% 이상 ※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적극 지원 권장
2순위	소득 4구간 : 등록금 90% 이상
3순위	소득 5구간 : 등록금 80% 이상
4순위	소득 6구간 : 등록금 70% 이상
5순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5-5 등록금 부담 경감 및 국고 장학금 지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공립대(10개교) 로스쿨은 5년간(~'20년) 등록금을 동결하였고, 사립대(15개교) 로스쿨은 등록금을 13% 인하('16년)한 바 있다. 또한, 2019학년도 기준 총 등록금 수입 851억 중 장학금 지급액은 295억원이다. 이 중 정부 지원 장학금은 45억원(15.2%)이며, 나머지 250억원(84.8%)은 학교가 부담하였다.

<1인당 연간 등록금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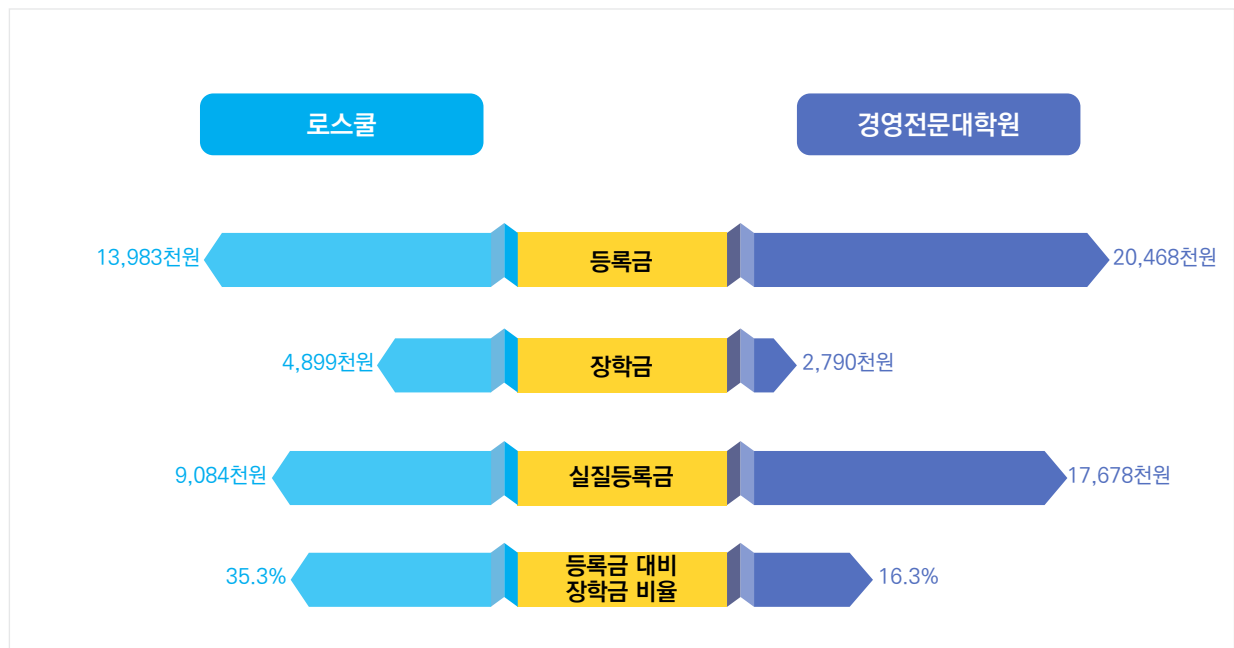
(단위: 천원)



5-6 타 전문대학원과의 비교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경영학 석사 과정인 '경영전문대학원'의 등록금·장학금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로스쿨의 등록금은 현저히 낮으며 장학금은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대학원별 연간 1인당 등록금, 장학금, 실질 등록금 비교('20년도)>



자료출처: 대학알리미
 등록금, 장학금, 실질등록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모두 '평균값'임.

06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로스쿨의 특별전형제도

로스쿨은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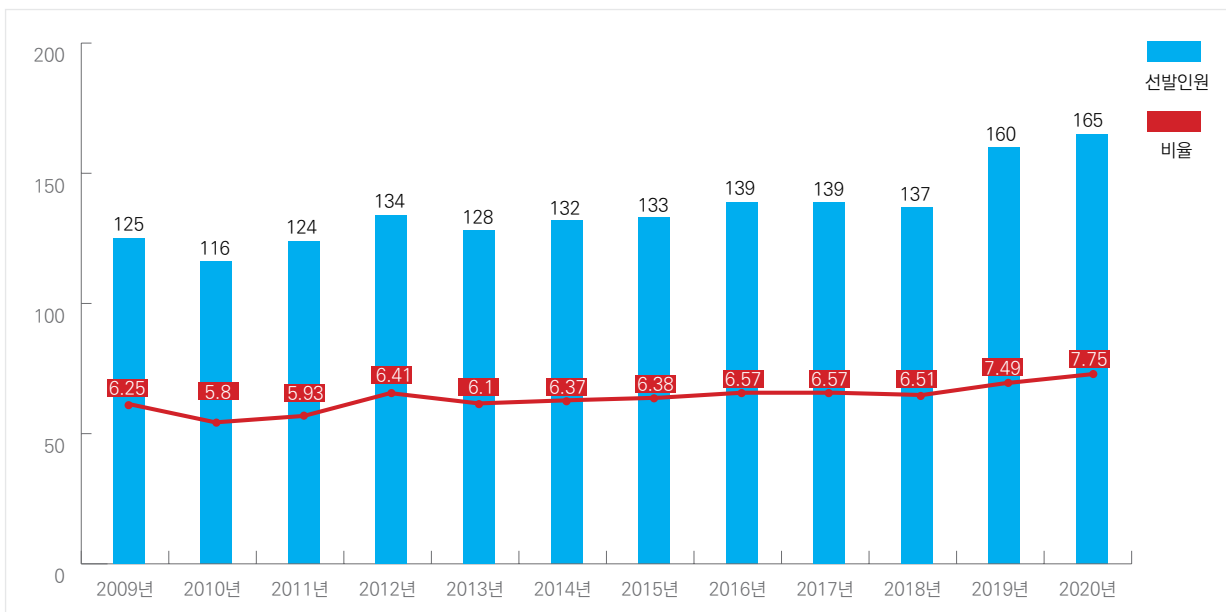
6-1 특별전형 선발인원

1,632명
(2009년~2020년)

총 1,632명의 학생이 '특별전형제도'를 통하여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조인의 꿈을 키웠다. 로스쿨은 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포함해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어(학교별 상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전형 선발인원 및 선발비율〉

(단위: 명, %)



※ 2018학년도까지는 매년 입학자의 5% 이상 선발하였으나, 2019학년도부터는 입학자의 7% 이상으로 확대하여 선발하고 있음.

※ 특별전형 구체 통계

2014년~2021년 특별전형제도로 입학한 학생 1,157명 중

구분		선발인원	구분		선발인원
신체적 배려	장애인	68	사회적 배려	농어촌지역 출신자	142
	기타	2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자	2
경제적 배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59		한부모가족지원법 조손가정 자녀	2
	차상위계층	446		북한이탈주민	4
	기타	40		5.18민주유공자예우	5
사회적 배려	국가유공자	67		산업재해 대상자	5
	독립유공자	8		보훈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	2
	다문화가족	5		합계	1,157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김재왕 변호사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대학원 재학 중 나머지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 연구자의 길을 포기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4년간 전문 상담원으로 근무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현재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장애인 인권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출처: 경향신문

휠체어 위에서 펼치는 꿈 박성민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는 카이스트 재학 시절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의대 2학년 시절 스키장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후 의대 마지막 학년에 의사 국가고시와 함께 로스쿨 입학시험을 동시에 준비했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여 '전문의 자격이 있는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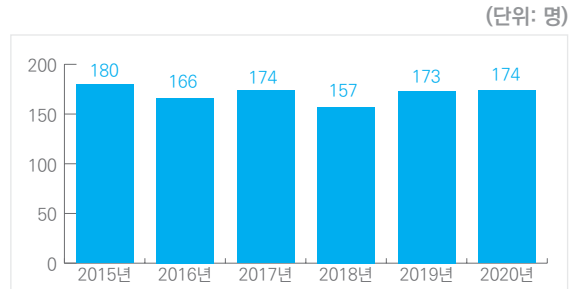
07 지역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5학년도부터 지방 소재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 그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024명의 지방대학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 로스쿨에 입학하였다.

7-1 지역균형인재 선발 인원

1,024명
(2015년~2020년)

- 강원·제주(2개교): 입학자의 10% 이상 선발
- 경북, 동아, 부산, 영남, 원광, 전남, 전북, 충남, 충북(9개교): 입학자의 20% 이상 선발



7-2 로스쿨 도입으로, 지역별 변호사 수도 많아졌을까?

로스쿨의 도입으로 지역별 변호사의 수가 증가하였고,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어렵지 않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단위: 명, %)

구분	2009년	2021년	증감률	구분	2009년	2021년	증감률
서울	6,830	18,483	171%	부산	368	950	158%
경기북구	206	423	105%	울산	95	205	116%
인천	299	627	110%	경남	146	381	161%
경기중앙	511	1,090	113%	광주	221	538	143%
강원	81	169	109%	전북	111	306	176%
충북	81	179	121%	제주	36	124	244%
대전	284	624	120%	합계	9,612	24,800	158%
대구	343	701	104%				

※ 자료출처: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변호사백서 및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 2021년 자료 '21.2.8 기준, 준회원(휴업, 미개업) 변호사(4,817명) 제외

08 여성 변호사, 여성 검사, 여성 법관의 증가세

여성 법조인 수의 증가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전문직 영역에서의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여성 법조인의 증가 추세 또한 뚜렷해지고 있다.

8-1 여성 법조인 수의 증가세

전체 법조인 중 여성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09년과 대비하여 판사·검사·변호사 중 여성 변호사 비율이 가장 높게 상승하였다. 법조인 종류별 여성의 비율은 판사 30.5%, 검사 31.0%, 변호사 27.1%로 '09년에 비해 각각 7.8%, 12.5%, 16.6% 상승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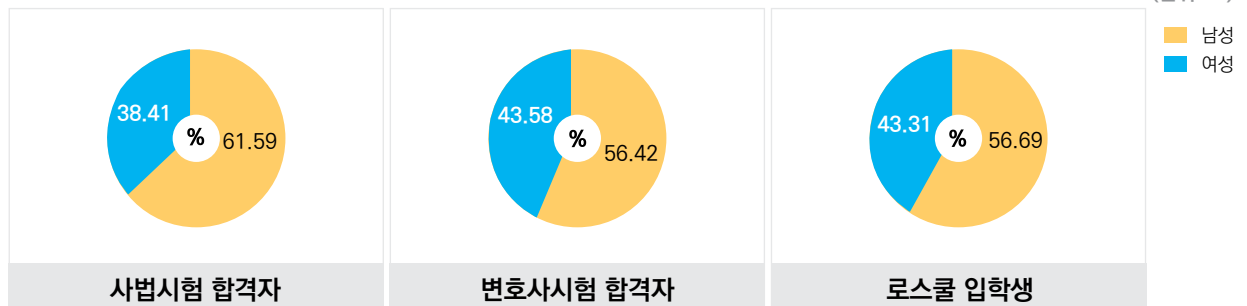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판사	22.7	24.0	25.5	26.8	27.4	27.4	27.6	27.8	28.9	29.7	30.5
검사	18.5	20.8	22.7	24.1	25.4	26.6	27.7	28.7	29.4	30.4	31.0
변호사	10.5	11.7	13.6	16.1	19.4	21.7	23.2	24.4	25.3	28.5	27.1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8-2 사법시험 합격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로스쿨 입학생 여성 비율

지난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은 38.41%에 그친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은 43.58%에 달했다. 이는 로스쿨이 여성의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추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법조인 중 여성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단위: %)



사법시험 합격자(4,856명, 2008년~2017년), 변호사시험 합격자(14,341명, 2012년~2020년), 로스쿨 입학생(25,042명, 2009년~2020년)

09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로스쿨의 입학전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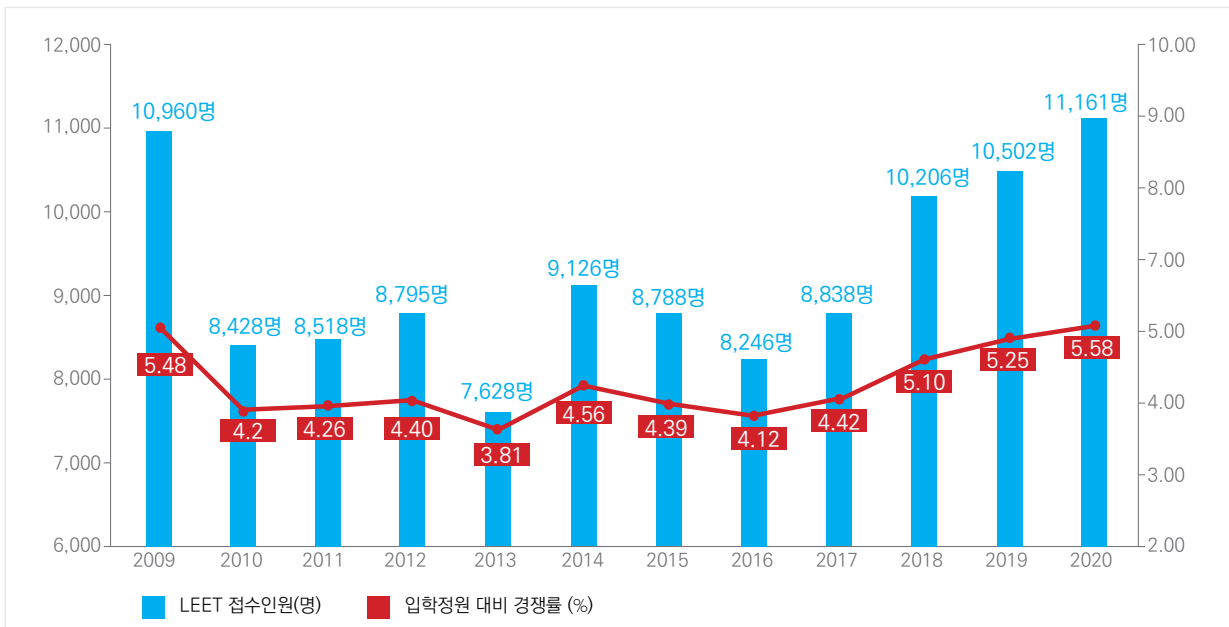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LEET)'을 통해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한다. 로스쿨의 입학 전형 및 방법은 로스쿨별로 상이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9-1 로스쿨 입학전형 과정

로스쿨 입학 을 위해서는 매년 7월 시행되는 법학적성시험을 거친 후 개별 로스쿨의 입학 전형에 따라 원서접수, 면접 및 구술고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법학적성시험 접수인원 및 입학정원 대비 경쟁률 추이



※ 2020학년도 2,130명 최종 합격(접수인원 대비 합격률 17.92%)

9-2 공정성 확보

25개 로스쿨은 입학전형의 평가기준, 전형요소, 배점, 입학전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한 입학전형이 되도록 하고 있다.

※ 2021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 사례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전형	비고
1단계 (합계)	2단계 (합계)	선발방법			
		1단계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학성적: P/F • LEET성적: 60점 • 대학성적: 60점 • 정성평가: 80점 [합계: 2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성적: 200점 • 면접 및 구술고사: 50점 [합계: 250점]	정원의 150% 선발 (특별전형 300%)	총점 순위	11명 이상 (가군)	비법학사 1/3 이상, 타대학 1/3 이상

9-3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

모든 제출 서류는 개인식별정보(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학번, 생년월일, 출신학교명)를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도 부모·친인척의 실명, 직장명(직위, 직종)을 기재하는 경우 실격 조치한다. 면접을 진행할 때에도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한 후 가(假)번호를 부여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면접위원을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하고 있다.

 개인 식별정보 음영처리	 부모, 친척의 실명 기재시 실격	 직장명 (직위, 직업) 기재시 실격	 광의적 직종명 기재시 실격 또는 감점	 면접 시 가(假)번호 부여	 외부 면접위원 위촉	 무(無)자료 면접 실시
--	--	--	---	--	--	--

10 경쟁력 있는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로스쿨 교육과정에는 법률 이론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무과목(법조윤리, 법률 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조인에게 필요한 기본지식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다. 또한 3년의 교육과정 중 6개 이상의 외국어 강의를 개설하고 해외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학생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커리큘럼도 마련되어 있다.

이론과 실무의 융합

- 법률가로서의 자질이 되는 공법, 형사법, 민사법 등 기초과목과 외국법, 비교법 등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는 선택과목을 통해 복잡다기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 배양
- 배양된 법률지식과 소양이 현실적인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실무경력 교원을 통해 다양하고 충실한 실무 교육을 제공

학제적·종합적 교육

- 문답이나 토론 등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업으로 기존의 강의 방식과 차별화
- 교과과정 중 다수의 과목에 있어서 경제학, 정책학, 철학, 인류학, 여성학, 역사학 등 관련 과목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 의료 등 인접 분야와의 융합을 추구함.

공익과 직업윤리 강조

- 법률 전문지식 이외에도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률가로 교육함
- 교과과정 중 법조윤리 및 공익인권 관련 과목들을 다수 편성함

10-1 실습 프로그램

인턴십 Internship

국가기관(경찰청, 국회, 국세청, 법무부, 법원 등) 및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에서 멘토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변호사 업무에 관한 실습과정



리걸 클리닉 Legal Clinic

현장에서 실제 법률문제를 접하고 법적지식을 적용하여 해결함으로써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음. 지역사회·사회적 약자 법률상담을 통한 공익성을 추구함.

10-2 특성화 프로그램

25개 로스쿨은 인적·물적 여건 및 지역 내 사회적 환경 등을 감안한 특성화 분야를 정하여 전략적 특성화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10-3 국제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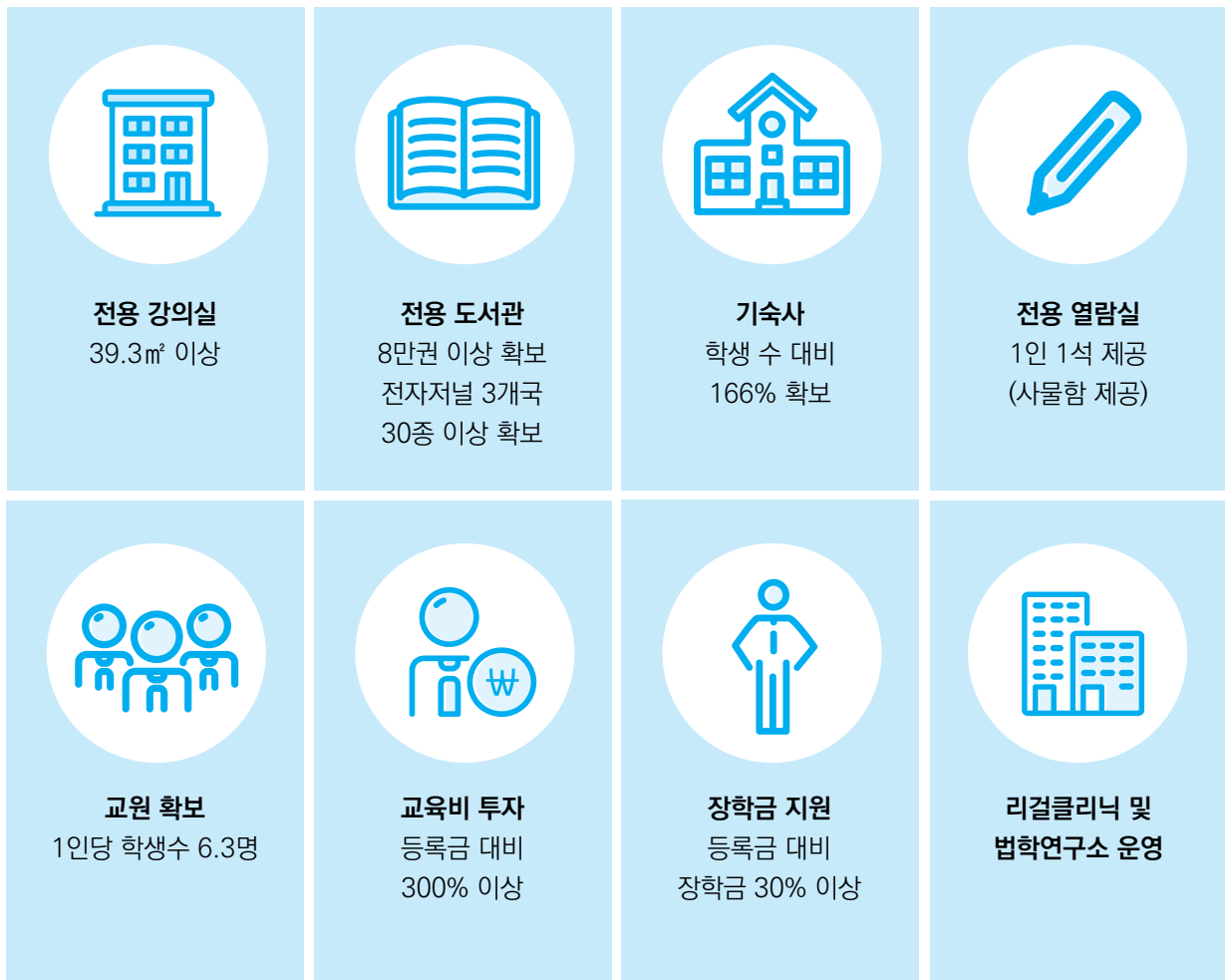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대만 등 세계 유수의 권위 있는 법학교육기관들과 공식적인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로스쿨 학생들이 더 넓은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세계적 리걸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11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로스쿨의 교육지원 현황

25개 로스쿨은 로스쿨 학생만을 위해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첨단 시설을 구비한 강의실 및 세미나실, 학술정보관, 모의법정을 비롯해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는 기숙사, 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최첨단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교원 1인당 학생 수 12명 이하,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30% 이상 지급 등 높은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11-1 교육지원 현황



12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엄정한 로스쿨의 학사 관리

전국 25개 로스쿨은 학사경고 및 유급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졸업시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등을 통해 엄정한 관리를 하고 있다.

12-1 엄정한 학사관리

전국의 로스쿨은 동일하게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대평가 시 학점 배분 비율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다. 또한 재학년한을 최대 5년으로 하여, 정해진 수학 기간 안에 졸업하지 못할 시에는 제적처리를 하는 등 학생들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 상대평가를 통한 학생간의 변별력 확보
- 제도화된 학사경고 및 유급 기준
 - 연평균 학사경고 330명, 유급 89명 발생
 - 2019학년도 제적, 자퇴 등 학업 중단 인원 : 164명
 - 2019학년도 졸업 유예인원 : 124명(6.2%)
- 자체 졸업시험 등을 통해 재학생의 학업 관리

12-2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

로스쿨은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해 3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연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형식으로 출제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대비한다. 각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졸업시험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 2011년 연 1회 시행에서 2013년부터 연 3회(6월, 8월, 10월) 확대 시행
 - 시험대상 : 3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차년도 변호사시험 응시)
 - 시험과목 :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택1)
- 변호사시험에 준하는 출제위원 구성 (로스쿨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연수원 교수 등 약 100여명 참여)
- 모의시험 후 출제진의 해설, 출제의도 및 문항별 정답률이 포함된 해설집 발간
로스쿨 졸업시험으로 대체 또는 연계

13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법조인,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는 졸업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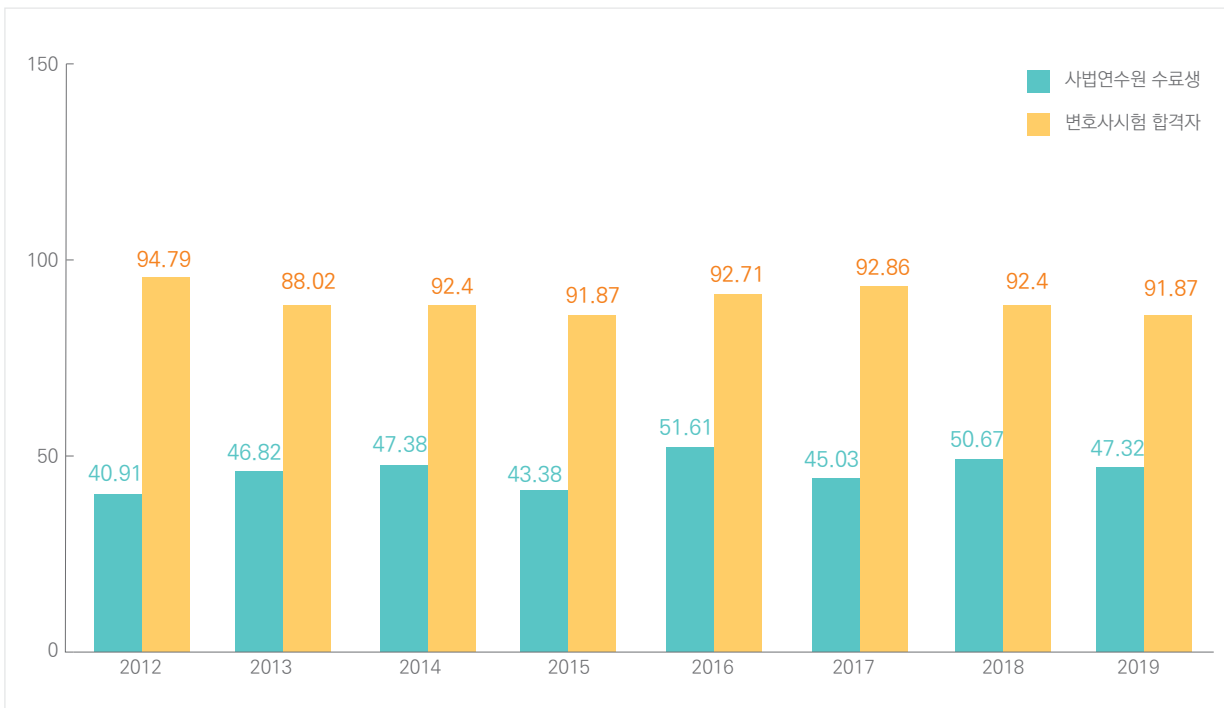
다양한 학부전공과 사회경력을 갖고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3년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사회 곳곳에서 법조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사법시험 시절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이 대부분 송무 영역으로 진출하던 것과 달리, 로스쿨 졸업생들은 공기업, 사기업, 공공단체, 지자체 등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법치주의를 확장하고 있다.

13-1 사법연수원 수료생 vs. 변호사시험 합격자 취업률 평균 92.12%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직전까지 약 10년간 사법연수원 수료생 취업률은 40~50%대에서 고전했다. 2012년 취업률이 40.9%로 떨어진 후 2016년(56.1%)과 2018년(50.6%)을 제외하고는 줄곧 40%대를 기록했다.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제도 도입 첫해부터 90%를 육박하는 높은 취업률을 보였으며, 평균 92.12%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생 vs. 변호사시험 합격자 취업률 비교〉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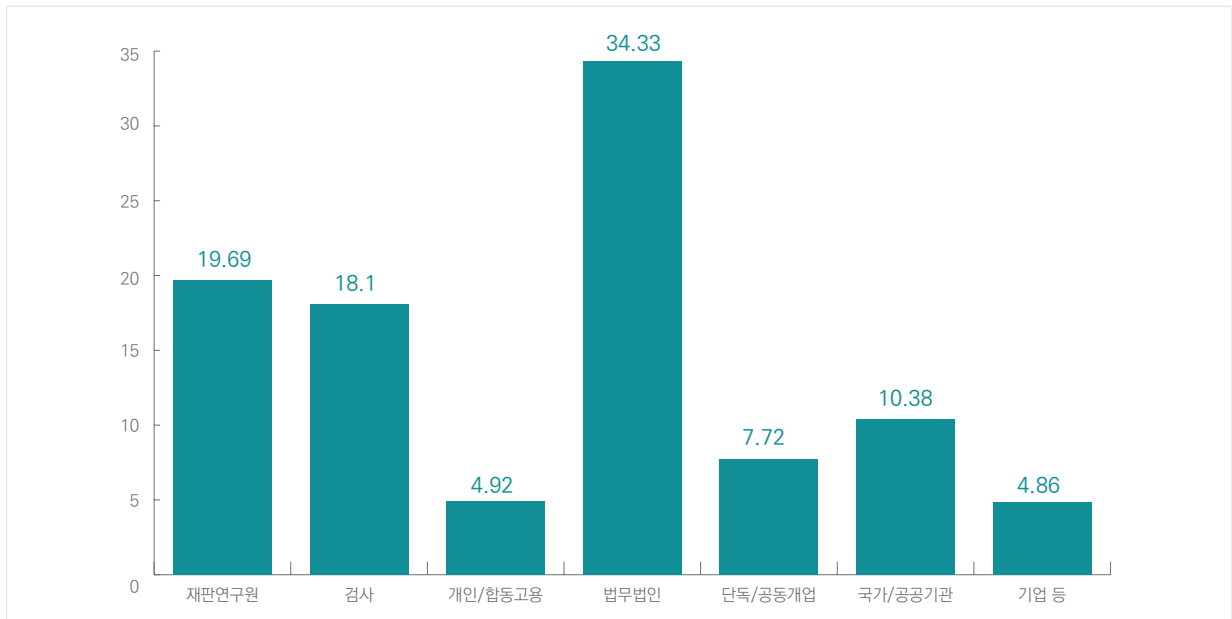
※ 사법연수원 41기~48기 수료생 취업률(매년 1월 초순 기준), 변호사시험 합격자 제1기~제8기 취업률(매년 2월 말일, 초시 기준)

13-2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진출 직역 비교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진출 직역은 크게 재판연구원, 검사, 법무법인, 개업 등 7개의 직역으로 압축되었던 반면, 로스쿨 졸업생의 진출 직역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기업 등 기존의 송무 영역에서 보다 확장된 직역으로 진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변호사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직역에서도 변호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등 사회 저변으로 법치주의가 확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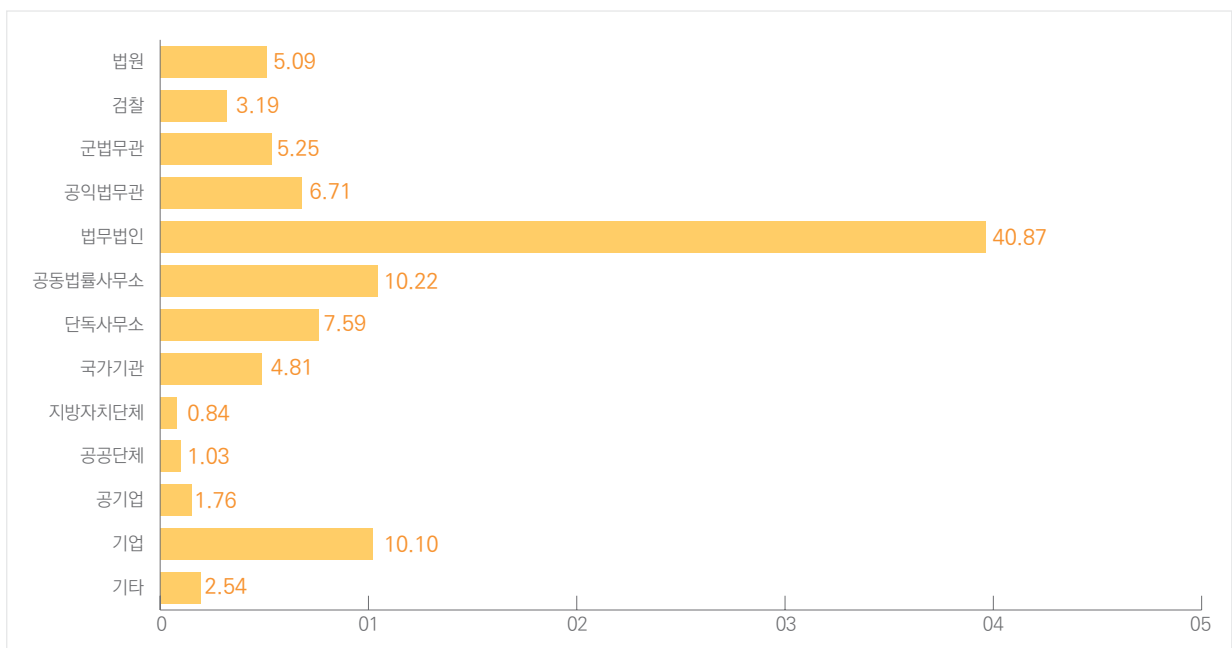
〈사법연수원 수료생 진출 직역 현황(41기~49기)〉

(단위:%)



〈로스쿨 졸업생 사회 진출 직역 현황(제1회~제8회, 초시 기준)〉

(단위:%)



13-3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로스쿨 졸업생들



강영희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업무는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이 끝나면 판단하고 그에 따라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합의부의 경우, 재판장은 재판진행, 배석판사는 판결문 초안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재판장인 부장님은 재판진행을 위해 속행 기록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이 끝나면 결심기록 검토 후 합의, 판결문 수정 등의 업무를 하고, 배석판사는 결심기록 검토 및 재판부 합의를 거쳐 판결문 초안 작성, 판결문 수정 등의 업무를 합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법률의 재·개정 및 의결, 정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이 합법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대변하며 국민의 행복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김동진 소령
장기군법무관

군법무관은 군 사법기관인 군사법원과 군검찰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법률전문가로서 송무, 법제, 인권, 작전법 등의 법률지원업무를 통해 군내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인사소청/법령해석 담당 군법무관의 경우, 군인/군무원에 대한 위법 부당한 인사처분을 구제해주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한편, 인사관계 법령에서 해석상 대립이 생긴 경우 유권해석을 통해 법령 집행의 공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합니다.



김석순 검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형사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재하는 사람입니다. 수사부터 시작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재판에 참여하며, 피고인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구하고 집행합니다. 제기한 공소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하지만, 수사를 해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할 때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검사의 임무입니다.



김수아 과장
법무부 인권정책과

법무부 인권정책과는 우리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범국가적 종합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을 하는 등 국가인권정책 업무를 총괄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중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법무부 소관) 및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과 심의, 국내이행 업무를 총괄하며, 나아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등 인권 관련 법령 제도 개선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욱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된 115년 역사의 빛나는 전통 위에 2021년 3월 현재 총 회원 변호사 22,000 여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최대·최고의 변호사 단체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인권침해, 환경, 공해, 차별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대안제시 등 각종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人材란 잘 훈련되고 다듬어지면 人才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人災가 된다”고 합니다. 법조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인성과 고매한 인품이 갖춰지지 않은 법조인은 법률기술자에 불과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은 기존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 비하여 비교적 짧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법학도들이 좋은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간명하고 현장감 있는 강의를 하고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백인성 변호사
KBS 기자

신입 기자들의 경우 통상 사회부에 배치돼 경찰서를 출입하는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거치기도 하나, 변호사 겸 기자로 입사한 경우 이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출입처(기자가 기사를 주로 취재하는 곳)에 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된 출입처는 변호사를 기자로 선발한 목적과 지식, 적성을 고려하면 사회부(법조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탁건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동천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비영리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도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특히 난민, 이주민 관련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난민, 이주민에 관련된 업무로는 상담, 소송, 행정청 단계에서의 이의신청 업무가 포함됩니다. 난민, 이주민 문제는 법제도의 문제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에는 난민 인권단체, 이주민 인권단체와 함께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선 변호사
한국맥도날드

사내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소송과 자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고 작은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며, 회사의 다른 모든 부서에서 의뢰하는 내부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팀에 소속되어 다른 부서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프로젝트 초반부터 법률 리스크를 검토하여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계약서를 검토하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14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

로스쿨의 도입으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되었지만, 변호사시험은 여전히 ‘선발시험’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 결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매년 감소하여, 응시자의 50% 정도만 합격하는 시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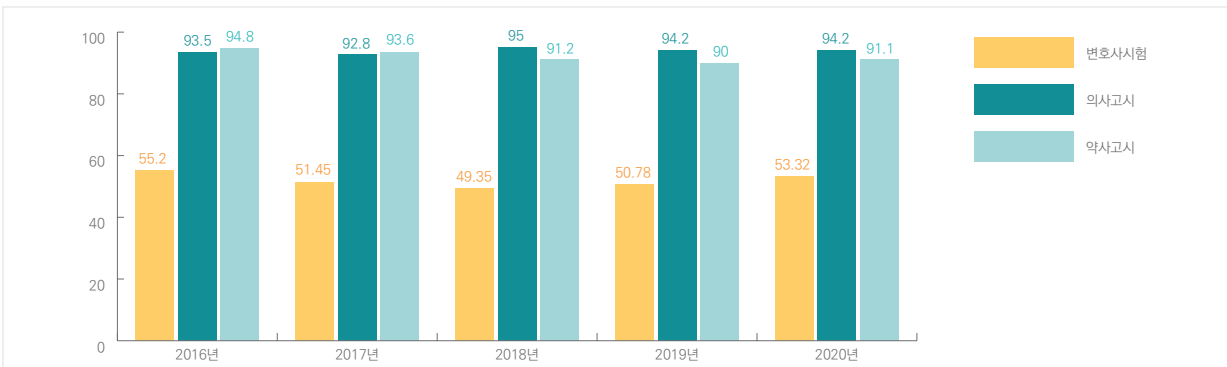
14-1 변호사시험 현황(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합격점수)

1~3회까지는 교육정상화 취지에 부합하는 합격자를 선발하였으나, 4회부터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 9회 시험의 불합격자는 1,548명으로 제1회 불합격자 214명 대비 1,334명(7.2배) 대폭 증가하였고, 합격기준 점수도 제1회 720.46점 대비 제9회 900.29점으로 179.83점 상승하였다. 자격시험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응시자 대비 60% 이상 선발되어야 한다.

(단위: 명)

구분	제1회 (2012)	제2회 (2013)	제3회 (2014)	제4회 (2015)	제5회 (2016)	제6회 (2017)	제7회 (2018)	제8회 (2019)	제9회 (2020)
응시자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3,240	3,330	3,316
합격자 (합격률)	1,451 (87.15%)	1,538 (75.17%)	1,550 (67.63%)	1,565 (61.11%)	1,581 (55.20%)	1,600 (51.45%)	1,599 (49.35%)	1,691 (50.78%)	1,768 (53.32%)
불합격자	214	508	742	996	1,283	1,510	1,641	1,639	1,548
합격점수	720.46점	762.03점	793.70점	838.50점	862.37점	889.91점	881.90점	905.55점	900.29점

14-2 다른 국가고시의 합격률도 이렇게 저조할까?





변시 합격률 50%인데...의사·간호사 시험만 95%? '형평성' 논란

자료에 따르면 27개 종류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경우에만 해마다 95%에 가까운 시험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3년 평균 의사는 94%, 치과의사는 95.3%, 한의사 95.6%, 조산사 98.4%, 간호사 96.3% 등으로 의사, 의료 분야의 시험은 유독 합격률이 높았다. 특히 조산사의 경우 한 해 시험인원이 총 10여명일 정도로 극소수 시험이다. 변호사 시험의 경우 올해 합격률은 53.32%로 낮은 편이어서 의사 시험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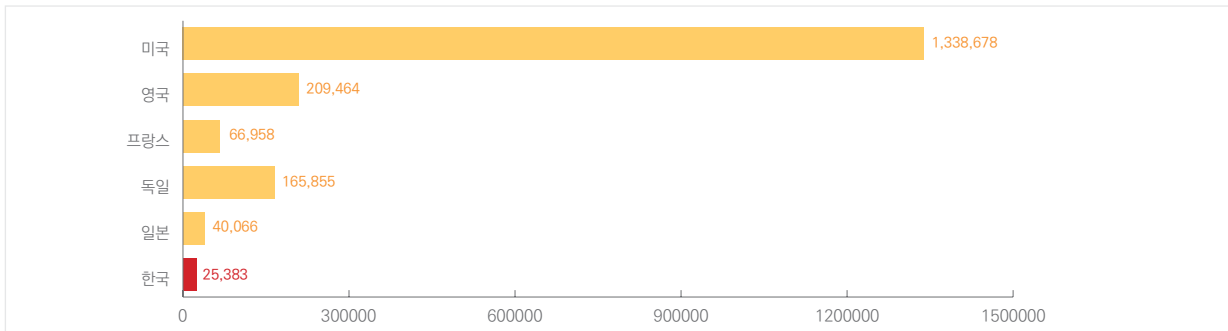
기사출처: 헤럴드경제 2020-10-12

14-3 우리나라 변호사 수, 정말 많은 걸까?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라서 변호사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포화상태'라는 접근은 현재의 소득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며, 신규 변호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9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변호사 인력 공급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세계 여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변호사 수(2018년)>

(단위: 명)



출처: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20

<인구 1만명 당 변호사 수(2018년)>



출처: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20

14-4 변호사 수, 왜 늘어나야 하나?

A. 변호사가 많아진다면 로스쿨 졸업생들 중 상당수는 변호사의 특권을 버리고 법률 송무직역이 아니지만 법률 전문가의 능력을 요구하는 직역으로 진출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 전 영역에 진출한 변호사들을 통한 양질의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서비스의 수혜자는 국민이 된다.

→ 사회 전반의 법치주의 고양,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

A. 점점 세분화 전문화되어가는 국제 법률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지식을 가진 변호사들을 많이 배출해야 한다.

→ 국제 경쟁력 제고




'무변촌' 없애는 로스쿨 변호사들

로스쿨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뜻하는 '무(無)변촌'을 없애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250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회장 김정욱 변호사, 센터장 황인규 변호사)는 '무변촌 해결 지역변호사 사업'을 위해 13일 무변촌 변호사 1호 사무실을 인천 강화군에 열었다. 무변촌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법무부가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가 해당 지역에서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협회 측은 이번 지역 진출 사업이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와 함께 '무변촌 없애기'라는 공익적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최소 5년 이상 해당 지역에 살면서 주민의 고충을 듣고 이해하는 등 지역에 녹아들겠다는 계획이다.

기사출처: 한국경제신문 2016-12-13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주소

 강원대학교 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LAW.KHU.AC.KR/

 고려대학교 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LAW.DONGA.AC.KR/

 부산대학교 LAW.PUSAN.AC.KR/

 서강대학교 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SLS.SKKU.EDU/

 아주대학교 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LAWSCHOOL.WKU.AC.KR/

 이화여자대학교 LAWSCHOOL.EWHA.AC.KR/

 인하대학교 ILS.INHA.AC.KR/

 전남대학교 LAWSCHOOL.JNU.AC.KR/

 전북대학교 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LAW.CNU.AC.KR/

 충북대학교 LAWSCHOOL.CHUNGBUK.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LAW.HUFS.AC.KR/

 한양대학교 LAWSCHOOL.HANYANG.AC.KR/

법조인을 꿈꾸는 모두의 희망 사다리
Lawschool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TEL 02 888 2034 FAX 02 888 202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_info.leet.or.kr 법학적성시험_www.leet.or.kr